

青年文化에 관한 考察

—韓國 青年文化와 關聯해서—

高 明 奎

I

青年文化는 넓은 意味에서 하나의 部分文化이다. 部分文化는 한 社會의 主導文化에 關係하는 多様하고도 異質的인 文化이며, 그 社會內의 一部 集團의 成員들이 主導文化의 影響을 받으면서도 하나의 獨特한 生活樣式을 發展시켜 나갈 때 形成된다. 그 중에서도 青年文化는 다른 部分文化와는 달리 그 社會가 앞으로 志向해야 할 方向에 대해서 가장 銳利하게 反應하는 젊은이 의 生活樣式이란 點에서 대단히 重要하다. 特히 創造的 青年文化와 主導文化와의 葛藤 및 緊張은 主導文化의 自体改革을 促進시키고 社會全般의 向上을 促求하며, 오늘의 發展만이 아니라 내일의 發展을 위해서 不斷한 改革을 刺戟한다는 點에서 매우 뜻깊은 文化이다.

그러나 反文化로 變質됨으로 因해서 深刻한 社會問題의 하나로 指目되기에 이른 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어떤 社會에 健全한 青年文化가 不在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 呼吸하는 한 나라 標本으로서의 青年들이 身體的·精神적으로 正常的인 健全한 發達에 障礙를 받게 되는 바, 이는 참으로 個人的인 立場에서나 그 國家社會의 立場에서나 重大한 問題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稿에서는 青年文化의 意義와 發生 要因 및 그 特質과 機能을 考察하여, 特히 韓國의 현실속에서 青年文化의 特性을 分析·檢討한 後 앞으로 健全한 青年文化의 建設課題를 모색해 보려고 하는 데에 本 研究의 目的을 둔다. 모든 青年은 學生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學生文化를 중심으로 論述됨을 附記해 둔다.

II

먼저 青年文化를 어떻게 規定지을 것인가? 文化란 人間의 行動樣式 價値觀 및 態度를 內包하며, 社會的 傳統的 二次的 性質을 가지고 있다. 文化는 나라와 時代 人種과 民族 그리고 社會階層과 年令에 따라 서로 다르다. 이와 같이 어떤 社會에 支配的이고 統一的으로 存在하고

2 는 문 집

있다고 생각되는 文化를 主導文化 (main-culture)라고 한다면, 그 社會內의 特殊한 集團에 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獨特한 文化를 部分文化 혹은 下位文化 (sub-culture)라 한다. 이런 意味에서 青年文化는 分明히 部分文化이다. 部分文化의 한 形態로서의 青年文化 (adolescent-culture)나 젊은이의 文化(Youth-culture)란 青年들에 獨特하게 存在한다고 생각되는 行動樣式이나 價値觀 및 態度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 青年文化에는 外部的으로 觀察할 수 있는 行動이나 服裝 言語 등의 部分이 있는가 하면, 青年들의 精神的인 方向을 提示해 주는 理念的이고 理想的인 面도 있다. 重要的 것은 青年文化를 感覺的인 面에서보다 오히려 理念的인 面에서 理解·檢討하는 일이다.

그러나 青年文化는 部分文化에 그치지 않고 그 以上으로 發展할 수 있다. 여기서 그 以上이라 함은 主導文化로부터의 偏差距離가 너무 커서 主導文化에 對決하게 될 경우를 말한다. 이럴 경우, 青年文化는 그 規範과 價値觀이 主導文化의 그것과 相衡되어 對抗文化(counter-culture)로 發展할 수도 있다. 青年文化가 對抗文化로 變質되는 것은 主導文化의 正當성과 適合性, 既存 社會構造의 隔差程度, 既存 政治構造와 理念의 正當性 効果性 등이 잘못된 方向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욕구 때문에 對抗文化로서의 青年文化가 생길 可能性이 있다¹⁾. 青年文化가 對抗文化의 性格을 갖는다고 恒常 나쁜 것은 아니다. 主導文化가 지나치게 硬直하고 閉鎖的이어서 急變하는 狀況에 대한 適應能力을 喪失하는 경우가 있다. 나아가 現實態를 떠난 空虛한 理念을 僞善的으로 強要하여 그것이 既存 社會體制의 갖가지 不條理를 낳게 하는 底流을 이루는 수가 있다. 이럴 경우, 青年文化는 社會를 再活性化시키는 肯定的 使命을 擔當하게 된다. 그렇지만, 反文化로서의 青年文化의 性格이 너무 強하면 統一的인 行動樣式이 社會에 缺如되기 때문에 混亂과 葛藤 및 對立이 繼續된다.

그러면 部分文化로서의 青年文化가 얼마나 主導文化와 性格이 비슷해야 하며, 또 얼마나 달라야 하는가? 青年文化는 青年들이 社會의 한 構成員으로서 社會生活을 할 때에 主導文化와 커다란 摩擦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主導文化와 調和的이어야 하고, 青年들의 特性이나 社會의 바람직한 理念의 實現을 위하여 青年들에게 뚜렷한 行動의 方向을 提示할 수 있을 만큼 獨特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뚜렷하고 健全한 青年文化가 없을 때에, 青年들은 方向感覺을 喪失하기 쉽고 社會의 將來는 어두워진다.

그런데, 注意해야 할 것은 青年은 있으며 青年文化가 없을 수도 있다는 點이다. 青年들이 안고 있는 社會體制나 構造의 特性, 그리고 그 社會의 主流를 이루고 있는 文化의 風土에 따라 青年文化의 質이 달라질 수 있다.

1) 韓完相, 現代社會와 青年文化 (서울: 法文社, 1974), p.74.

I

다음, 青年期の 特有한 不安·焦燥·抵抗 등의 問題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러한 青年問題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見解가 있다. 하나는 心理學者들의 見解로서, 그러한 問題가 이 時期的 急激한 身體的 成長의 不均衡에서 오기 때문에 不可避한 現象으로 본다. G. Stanley Hall은 青年의 特徵을 ‘暴風과 緊張의 時代’ (Storm and Stress period)라 하여 그 原因을 性的 變化에서 求했는가 하면²⁾ Ch. Bühler은 ‘否定期’ (the negative phase)라 불러 身體的인 變化에서 찾았다³⁾

또 하나는 人類學者와 社會學者들이 主張하는 見解로서, 社會的인 環境과 個人間的 不適應의 問題로 생각한다. 青年期の 問題를 複雜하게 發達한 現代文明의 副產物로 看做한다. M. Mead의 見解가 그것이다⁴⁾ 그러면, 오늘날 青年文化의 形成을 促進시키는 社會的 環境은 무엇인가? 青年文化의 發達을 促進시키는 社會的 條件을 急激한 社會變動, 青年期の 延長, 社會의 分化와 自律性의 要求 및 學校人口의 팽창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을 考察하기로 한다.

첫째, 青年文化 形成 促進의 要因은 急激한 社會變動이다. 社會變動은 物質的인 面만 아니라 精神的인 面도 變化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變動은 一律的으로 全體社會에 일어나지 않고 部分的으로 일어난다. 外國文化와 接觸하거나 都市에 살거나 젊은 사람일수록 먼저 變한다. 이 變換한 部分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自然 思考方式과 行動樣式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一種의 部分文化를 形成할 可能性이 짙다. 오늘날 急激한 産業化, mass·media의 發達 등은 젊은이들에게 獨立의이고 自由로운 世界觀을 要求함으로써, 青年들은 既成世代의 生活樣式과는 다른 下位文化를 形成하게 되어 世代差의 問題를 惹起시킨다. 이 世代差의 問題야말로 青年文化의 重要한 部分을 이룬다.

둘째, 青年文化의 發達을 促進시키는 要因은 青年期の 延長이다. 옛날에는 生理的 成熟이 제대로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社會·文化的으로 自主와 自律을 象徵하는 結婚을 하여 家族을 形成하였다. 이런 곳에서는 青年期다운 青年期를 가져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時期에 獨特하다 고 할 수 있는 行動樣式이 發達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現代 社會에서는 青年期가 길다. 나이 20歲가 되면 生理的으로 成人과 다를 바 없지만, 社會·心理的으로 完全히 成熟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0~15年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 期間에는 工夫하는 것 以外에는 特別히 하는 일 없이 父母에 依存해 살며, 獨立心과 責任 있는 한 사람의 社會人의 일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 E. H. Erikson은 이러한 青年期の 性格을

2) 朴俊熙·田贊和 青年心理 (서울: 凡文社, 1964), pp. 50-51.

3) 依田 新, 青年心理學 (東京: 培風館, 1976), pp. 48-50.

4) Margaret Mead, Coming of Age in Samoa (New York: Dell publishing Company, 1971).

4 는 문 점

moratorium (支拂延期)이라고 불렀다.⁵⁾

이와 같이 많은 靑年들이 勞動에서 解放될 수 있게 된 것은, 人類社會가 바야흐로 脫産業社會 (Post-industrial society)에 突入하고 있는데 原因이 있다. 脫産業社會는 生産力의 增加도 있지만, 頭腦産業이 發達하기 때문에 知識을 創造·開發·應用하는 知識産業 (knowledge Industry)의 重要性이 크다. 이러한 知識産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學校教育, 特히 大學院教育이 必要하기 때문에 靑年期를 延長시키는 結果가 된다.

셋째, 靑年文化 形成 促進의 要因을 社會의 機能의 分化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各 社會 組織이나 機關의 業務 및 作業은 專門化되고 分業化 되었다. 過去엔 家庭의 主要 機能이 生理的 經濟的 教育的 娛樂的 機能과 心理的·情緒的 安定을 圖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歸屬主義(ascription)보다 業績主義(achievement)에 의해 社會的 地位가 決定되고, 教育은 學校, 娛樂는 娛樂機關으로 各各 그 機能이 移行되었다. 經濟的 機能도 過去엔 生産者인 아버지에 依存해서 살았으나, 이제 各者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家庭의 機能이 分化됨에 따라 家族員을 統制하던 拘束力이 弱화되고 있는 反面, 各者는 自己 問題를 決定할 수 있는 自由를 幅 넓게 갖게 되었다. 父母의 統制를 벗어나서 自己의 일을 自律的으로 決定한다는 것은, 그만큼 靑年들의 獨特한 行動樣式을 發達시키는 結果를 가져왔다.

넷째, 學校人口의 膨脹이 靑年文化發達의 促進 要因이다. 學校人口의 膨脹은 靑年期의 延長과 더불어 靑年文化 形成의 重要한 原因이 된다. 過去 高等學校와 大學의 人口가 少數 支配階級의 子弟들에게 限定되었을 때는 學生들의 獨特한 行動樣式을 發達시키기에는 너무나 數가 적었다.

學校人口가 膨脹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때와는 事情이 달라진다. 學校는 靑年들을 組織하고, 對話할 수 있는 機會와 場所를 마련해주고, 또 模範人物(model figures)을 登場시켜줌으로써 靑年文化를 登場시키는 背景이 된다.

그런데, 第二次 世界大戰後 全世界的으로 學校人口가 急增하기 始作한데는 그 理由가 있다. 先進國들은 教育의 膨脹은 높은 經濟水準을 維持하는데 必要하다고 생각했고, 開發途上國들은 近代化를 達成하기 위한 重要한 手段의 하나로 보았다. 特히 植民地 統治 經驗이 있는 新生 獨立國의 國民들은 特權層에 制限되었던 教育의 機會에 대한 過去의 熱望을 充足시키기 위하여 社會·經濟的現實을 돌아보지 않은 채 子女들을 學校에 보낸다. 教育을 社會移動 (social mobility)의 要因으로 強하게 느끼는 傾向이 오늘날도 매우 높다.

5) Erik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Inc., 1950), pp. 261-263.

IV

現代社會에 있어서 青年들의 獨特한 青年文化를 發達시키는데 寄與하는 몇가지 社會的 與件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要因에 의하여 形成된 部分文化로서의 青年文化는 어떤 獨自의 特質과 機能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問題들을 檢討하기로 한다.

먼저 青年文化의 一般的인 特質은 다음과 같다.⁶⁾

(1) 既成文化에 대한 銳利한 反應을 나타낸다. 青年文化는 다른 下位文化와는 달리 既成價値에 대해서 날카롭고 敏感하여 批判的인 反應을 보인다.

(2) 創造的 對抗文化의 性格을 갖는다. 青年文化는 社會的 沈滯와 構造的 不條理를 除去하기 위하여 秩序있는 告發精神을 갖는다.

(3) 學業에 대한 價値보다 獨自의인 活動을 통한 地位와 人氣에 대한 價値를 追求한다. 學生들의 下位文化는 學業이나 正規의 學校活動에 대해서보다는 運動, 親交, 課外活動, 政治活動 등과 더 깊은 關係를 맺는다. 이러한 集團에서 青年들 自身대로의 位階的인 秩序를 갖고 있다. 1950年代의 美國 大學의 下位文化가 社交的인 活動에 너무 치우쳐 學校의 一次的 機能이 弱化되어 結局 宇宙科學의 競爭에서 蘇聯에 뒤떨어졌다는 批判이 높았다.⁷⁾ 社交的 活動이 너무 強調되는 傾向을 大學의 反知性主義(anti-intellectualism)라고 하며, 이러한 傾向은 警戒해야 할 것이다.

(4) 既成世代에 比하여 높은 水準의 欲求體制를 갖고 있다. 青年은 既成世代에 比해서 높은 理想을 지니며, 이의 實現을 위하여 努力을 아낄 줄 모른다. 그러나 理想과 現實사이의 틈(gap)을 메우는데 있어서는, 青年은 知的인 態度보다도 오히려 感情的인 態度를 取하기 쉽다. 青年의 能力 以上の 높은 欲求水準은 失敗經驗을 自招하지만, 그 水準을 固執하여 可塑的으로 이를 變化시킬 融通性이 缺乏되어 있어 失敗를 되풀이 하게 된다.⁸⁾ 이러한 挫折感은 不當하게 잘 사는 階層과 比較하여 被剝奪感이나, 非行的 頹廢的 反文化를 形成할 憂慮도 있다.

(5) 青年文化는 過渡期的인 것이 아니라, 그 自体가 獨立된 文化의 意味를 갖는다. 青年期는 傳統的인 觀點에서 처럼 過渡期로 보기에는 젊음이 그 어느 때 보다 社會的으로 延長되었다. 學校教育의 年限의 길이와 結婚年令의 延長에도 그 原因이 있다. 青年期에 形成된 生活樣式은 一時 流行이 아니라 그 뒤에도 繼續하는 性質을 갖는다는 點에서, 青年期 그 自体가 特有性을 갖는다.

6) 鄭寅錫, 現代 青年發達心理學 (서울: 載東文化社, 1977), pp.162-163.

7) James S. Coleman, The Adolescent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1), p. 5.

8) 坂田 - 外, 青年期の 理解 (東京: 福村出版, 1973), pp137-138.

6 는 문 집

다음, 青年文化는 全体文化의 下位文化로서 存在할 수 있는 基盤을 갖기 때문에, 青年文化로서의 獨自의인 機能을 갖고 있다. 이 特有的 機能은 青年期の 社會化(Socialization)를 決定的으로 支配할 수 있는 作用力을 지닌 바, 그 機能의 內容을 들면 다음과 같다.⁹⁾

(1) 青年文化는 家族과 社會, 兒童期와 成人期의 中間의 媒体로서의 役割을 하며, 그 移行을 順調롭게 돕는 힘을 갖고 있다. 社會生活體制가 複雜하여 成人의 地位를 獲得하기가 어려운 現代社會에서는, 青年文化는 青年에게 連帶와 支持를 提供함으로써 成人社會가 갖는 獨立과 自律, 價値나 規範의 習得을 促進시키는 機能이 있다.

(2) 青年文化는 大衆文化와 支配者文化의 中間에서 兩文化의 潛在的 緊張을 創造적으로 解消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다. 大衆文化의 長點과 特色을 支配者 文化에 流入시켜 支配者 文化가 보다 正當한 文化로 發展할 수 있게 한다. 青年文化의 이러한 創造的 和解機能은 文化의 調和에는 勿論 主導文化의 發展, 社會構造의 民主化와 人間化를 促進시키는데도 이바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青年文化는 平和志向의 文化의 性格을 갖고 있다.

(3) 青年文化는 彷徨하는 青年에게 길잡이가 되는 規範을 提示하며, 人生의 指標로서의 價値觀을 提供한다. 健全한 青年文化가 存在한다는 것은 青年들에게 그들 特有的 行動樣式을 가르쳐주고, 一定한 理念·態度 등을 갖도록 해줌으로써 一種의 安息處를 提供해 준다. 처음 外國에 移住한 사람들이 그 곳의 生活樣式을 모르는데서 겪는 緊張과 葛藤을 文化衝擊(Culture shock)이라 한다.

(4) 젊음의 激情과 浪漫을 建設적으로 昇華시켜, 青年의 에너지를 文化創造로 轉換시켜 주기도 한다.

(5) 青年文化는 既成世代를 깨우쳐 주고, 젊음을 잃지 않게 해준다. 青年文化는 既成世代로 하여금 青年을 보다 깊게 理解하게 하고 來日의 엘리트로서 所重히 여기게 함은 勿論 既成世代의 現實打算的인 生活을 反省케 한다. 한편 衰退해 버린 젊음의 特性을 다시 찾을 수 있는 刺戟을 주어 生活을 더욱 젊게 하는 活力素의 役割을 하기도 한다.

(6) 青年文化는 逸脫을 輕減시켜 주는 機能이 있다. K. Lewin은 場理論(field theory)의 立場에서, 青年은 兒童과 成人이라는 두 集團의 境界에 位置하는 境界人(marginal man)으로서 不安定感과 過敏, 緊張이 그 特徵이라 했다.¹⁰⁾ 社會的 地位가 不明確하여 確固한 生活根據地를 갖지 못하는 困難한 狀況에 놓여 있다. 그러나 青年이 서로 類似한 狀況과 感情 및 놀이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一種의 連帶感을 賦與한다. 여기에, 青年文化가 過渡期로서의 青年期에 安定感과 所屬感을 補償적으로 提供하여 不適應의 發生을 막는 作用이 있다.

9) 韓完相, 前掲書, p. 99, pp. 105-106.

古澤賴雄 外, 青年心理學(東京: 有斐閣, 1975), pp. 340-341.

10) 依田新, 前掲書, p. 60.

(7) 青年文化는 成人으로서의 自我同一성과 欲求不滿 耐忍性(frustration tolerance)形成의 機能이 있다. E. H. Erikson은 青年期를 自我同一性(ego-identity) 形成의 時期라고 規定했거니와, 青年文化는 成人期에 대한 精神·社會의 支拂延期에 있는 青年이 成人으로서 自我同一性을 찾고 이를 形成하기 위한 갖가지 努力의 機會를 준다. 複雜多端한 成人의 社會生活에 들어가기에 앞서, 青年은 그들 文化속에서 온갖 不滿과 挫折을 참아내는 것만이 自己를 發見하고, 希望찬 來日의 成功과 成就에 連結된다는 것을 意味지워 준다.

H. Sebald는 下位文化로서의 青年文化의 成立條件으로서 다음 8가지를 들고 있는데,¹¹⁾ 이것도 어느 意味에서는 青年文化의 機能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成人이나 兒童과는 다른 獨特한 一連의 價値를 包含하고 있다.
- ② 成人에게는 잘 理解할 수 없을 만한 隱語가 使用되고 있다.
- ③ 青年은 成人과는 共有하지 않은 獨立된 流行을 만들어내고 있다.
- ④ 服裝·몸치장에 대해 成人에서 獨立된 標準이 지켜진다.
- ⑤ 一次的 集團所屬感(Primary group belongingness)을 준다.
- ⑥ 地位關係가 成立되고, 이로 인해 友人과의 安定되고 一貫된 相互作用이 可能하다.
- ⑦ 成人의 統制에서의 逃避를 돕는 環境을 提供한다.
- ⑧ 異性과의 接觸이나 青年다운 性行動의 機會를 增加시킨다.

이와 같이 青年은 青年文化에 參與함으로써 成人文化속에서는 充足시킬 수 없는 欲求를 滿足시키는 機會를 얻을 수 있고, 스스로 青年다운을 確認할 수 있다.

V

그러면, 韓國社會의 現實속에서 青年文化의 特性은 무엇인가? 아직도 韓國 青年文化의 特徵에 대해서는 論議가 進行中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음 세 가지, 즉 既成文化에 대한 批判과 抵抗, 東洋的인 價値觀과 西歐的인 價値觀의 葛藤, 그리고 願望隔差論으로 나누어 考察하기로 한다.

1) 韓國 青年文化의 한 特性으로서 既成文化에 대한 批判과 抵抗을 들 수 있다.

既成世대의 文化에 대한 批判과 抵抗意識이란 既成文化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修正을 要求하거나, 그 文化와 다른 獨特한 價値觀이나 行動樣式을 갖는 것을 뜻한다. 萬一 오늘의 現實이 滿足스럽다면 修正할 必要를 느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既成文化와 青年文化가 完全히 同一하다면 이미 存在하고 있는 文化가 그대로 傳承되는 것이므로 發展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程度의 批判과 抵抗意識은 將來가 現實보다 더 改善되면서 發展해 나가야 한다

11) H. Sebald, Adolescence: A Sociological Analysis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 1968).

는 假定에서 青年文化의 基本性格이 아닐 수 없다.

韓國 青年學生들은 歷史的 傳統과 相對的 貧困意識 및 社會 不條理 등이 原因이 되어 既成文化에 대한 反撥과 抵抗을 經驗하는 것이 그 特色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많은 新生 獨立國家의 學生들은 反植民運動의 오랜 歷史的 傳統을 갖고 있거니와, 韓國도 그 例外일 수 없다. 韓國의 青年學生들도 3·1 運動을 비롯하여 4·19 등 日帝 및 植民地 統治와 그 以後의 獨裁 및 不正腐敗에 強力히 抗拒한 歷史的 傳統을 갖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儼然한 事實이다. 이러한 歷史的 傳統은 學生을 現實參與로 이끄는 原因이 될 수 있다.

社會의 不條理가 學生을 社會參與 (social-participation)로 이끌 수 있다. 大學도 社會의 한 部分이기 때문에 社會가 混亂하고 腐敗한 가운데 學校와 教育만이 깨끗하고, 社會와 孤立된 象牙塔의인 存在로 머물기는 어렵다. 學校에서는 不正, 腐敗, 不條理를 배우지 않음은 勿論 理論을 통해서 理想的인 것이나 理念的인 것을 배운다. 이처럼 學校에서 學習한 原理原則과 社會의 現實이 맞지 않을 때, 學生들은 거기에 強한 抵抗을 느낄 것이다. 이런 點에서, 庶政刷新의 風土 助成은 學生들의 抵抗을 輕減시키는 한 手段이 된다.

相對的 貧困意識 (relative deprivation)은 不當하게 잘 사는 集團과 比較함으로써 느끼는 被剝奪感과, 理想과 現實間의 乖離를 銳敏하게 느끼는 데서 오는 批判意識이란 두 뜻을 갖고 있는 바¹²⁾ 學生들이 國民들의 平均 生活水準을 上廻하는 生活을 한다 하더라도 不當하게 잘 사는 個人과 集團을 보고 듣는다든가, 後述하는 願望隔差에서 挫折과 緊張, 逸脫行爲를 할 憂慮가 있음을 想像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韓國 青年文化는 反文化의 性格을 띠고 있지 않다. 青年學生들은 非合法的인 手段으로 青年들의 主張을 貫徹하려 함으로써 手段에 있어서는 '破律的'이지만, 自由·民主 등 民主主義의 理念을 否定한 적이 없음으로 目的에 있어서는 '準律的' (Conforming)이다.¹³⁾

그런데, 青年들의 社會에 대한 批判의 內容과 形態는 나라마다 다르다. 先進國의 青年들이 人類全體의 權利와 幸福, 正義를 내세우면서 科學의 發達에서 오는 人間性的 喪失을 批判하고 反技術·反物質의 運動에 心醉하는데 反해, 新生國의 젊은이들은 經濟的 成長·民主化·平等의 伸張 등을 內容으로 하는 科學主義·合理性·政治的 自由 등이 關心의 對象이 된다. 前者의 反抗이 欲求以後的 (Meta-motivational)인 것이라면, 後者의 그것은 欲求的인 (motivational) 것이다.¹⁴⁾ 즉 前者가 量的 革命意識보다는 質的 革命意識 (qualitative revolution)이 強하다면, 後者는 量的 革命 (quantitative revolution)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러한 差異는 結局 西方國家와 開發途上國의 社會的 差異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12) 韓完相, 前揭書. pp.92-93, pp.132-134.

13) 上揭書, pp.64-65.

14) Abraham H. Maslow, "A Theory of Metamotivational: The Biological Rooting of the value -Lif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Fall, 1967).

2) 韓國 青年文化의 또 하나의 特性은 價値觀의 葛藤에서 찾을 수 있다. 社會變動이 甚하고 社會構造와 文化構造의 隔差가 甚한 社會에서는 價値觀의 葛藤을 갖기 쉽다. 韓國 社會에는 都市와 農村의 差異, 一次·二次·三次産業의 差異 및 西歐的인 것과 東洋的인 것의 差異가 함께 併存해 있다. 이러한 現象을 K. Mannheim은 “非同時的인 것의 同時的인 共存”(the contemporaneity of the non-contemporaneous)이라고 불렀다.¹⁵⁾

이러한 現實은 高等學生 및 大學生들을 相對로 한 價値觀의 調查研究에서 잘 反映되고 있다.

申憲植에 의하면¹⁶⁾ “父母로서 子女에게 가장 強調해서 가르칠 敎訓은 무엇입니까?”라는 質問을 高校生에게 던졌는데, 全体 1,357名 중 가장 높은 頻度를 보인 應答은 ‘獨立精神과 強한 信念’(36.1%)과 ‘完全한 人格의 所有者’(32%)였다. 洪承稷의 同問項에 대한 全体 1,895名의 大學生의 應答도 前者가 40%이고, 後者가 36%로서 大差가 없다.¹⁷⁾ 筆者의 同問項에 대한 新入生 280名의 應答도 이와 비슷하게 前者가 40%, 後者가 29.3%로 나타나고 있다.¹⁸⁾ 여기에 서 獨立精神을 西歐的인 價値觀이라고 한다면, 完全한 人格者는 傳統的인 儒敎文化에서 價値롭게 여겼던 修身에 該當한다.

또한 洪承稷의 結婚相對者의 選擇權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研究에 따르면¹⁹⁾ ‘結婚相對者를 當事者가 選擇한다’가 36%, ‘當事者가 定한 後 父母와 相議한다’가 50%이다. ‘父母가 定하고 當事者와 相議한다’가 13%이다. ‘父母가 選擇한다’가 1%이다. 結局 86%에 이르는 學生이 當事者가 相對를 먼저 決定한다는 것이 옳다고 보는 셈이다. 이와 類似한 設問으로서 濟州大學生의 “結婚 對象者를 選擇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나?”의 應答은 全体 460名 중 ‘父母의 일’ 0.4%, ‘父母·當事者 共同의 일’ 47.6%, ‘當事者의 일’ 52%로 나타나고 있다.²⁰⁾ 이 事實들은 오늘의 젊은이가 傳統文化로부터 많이 벗어났다는 事實을 말해준다. 金泰吉의 研究에 의하면²¹⁾ “젊은 사람은 大小事를 莫論하고 父母와 議論해서 할 것이며, 決코 自己 마음대로 해서 는 안된다”라는 設問에 全体 (1,692名)의 43%가 ‘그렇다’고 肯定하고, 51%가 ‘아니다’라고 反對하고, 6%가 ‘모르겠다’는 應答이다. 傳統的인 觀念에 의하면 젊은이는 父母에게 絕對 服從해야 하지만, 過半數의 大學生이 自己 뜻대로 行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經驗的 調查結果에서 미루어 보면, 韓國 青年文化의 特性은 相克性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傳統的 價値觀에서 離脫하여 西歐的인 價値觀의 方向으로 기울어

15) Karl Mannheim, Man and Society in an Age of Reconstruction (London: Kegan paul, 1940), p. 42.

16) 申憲植, “高等學校 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一研究”(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敎育大學院, 1970).

17) 洪承稷, 韓國人의 價値觀 研究(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1), p. 269.

18) 拙稿, “新入生 價値觀 調査研究” 학생지도 第3輯. 道州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3.

19) 洪承稷, 前揭書, p. 274.

20) 拙稿, “濟州大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一研究,”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76.

21) 金泰吉, 韓國 大學生의 價値觀 (서울: 一潮閣, 1967), p. 180.

지고 있음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葛藤은, 靑少年의 成人意識을 둘러싼 靑少年自身과 成人들의 意識의 差異에서도 찾을 수 있다. 靑少年들은 成人들과 같은 責任있는 行動은 하려하지 않으면서도, 成人이 갖고 있는 모든 特權은 가지려고 한다. 그러나 成人들은 靑少年들에게 成人으로서의 特權을 認定하지 않으면서 成人의 責任있는 行動을 要求한다. 成人들은 이러한 要求들을 무턱대고 억누르기 보다 따뜻한 理解로서 指導가 必要하다.

3) 끝으로 韓國 靑年文化의 特徵은 靑年들의 緊張과 挫折의 要因이 되며, 特히 相對的 剝奪感과 逸脫의 要因이 되는 願望隔差이다.²²⁾

왜 願望隔差가 생기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用語의 理解가 必要하다. 먼저 自己가 誕生했을 때의 父母의 位置를 源泉地位 (status of origin)라고 부르며, 自己가 將來 成就하고자 하는 地位를 終着地位 (status of destination)라 한다. 이 때 個人이 將來 바라는 地位에 屬하는 사람들의 價値觀이나 生活樣式을 미리 받아들이고 內面化하는 過程을 豫見的 社會化 (anticipatory socialization)라고 한다. 學者가 되고 싶은 學生이 그 前에 學者가 갖는다고 생각되는 諸 特性, 즉 스타일·價値觀·規範 등을 미리 익히고 自己의 것으로 삼게 되면, 그 學生은 豫見的 社會化 過程속에 있다. 또 出世와 成功의 象徴으로서의 높은 地位를 希求하면서도 이를 獲得하는데 必要한 機會構造의 束約과 自己能力의 限界 때문에 낮은 地位를 期待하게 되는 것을 制約認知(perception of limitation)라고 한다. 즉 豫見的 社會化에 의해서 將來 社會的 地位에 대한 높은 水準의 希求가 생겨나지만, 制約認知에 의해서 낮은 水準의 期待를 갖게 된다.

그런데, 開放體制이면 體制 일수록 豫見的 社會化는 빨리 일어나서 將來 地位에 대한 願望이 높아지지만, 制約認知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自己의 希望과 能力에 따른 期待 사이에는 差異가 있게 된다. 이 差異, 즉 希求(wish)와 期待(expectation)사이의 差異가 願望隔差(aspiration discrepancy)이다. 希求의 水準이 期待의 水準 보다 높을 때 願望隔差가 생기며, 이것을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願望隔差 = 希求 - 期待

結局 願望隔差는 豫見的 社會化와 制約認知의 結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願望隔差는 教育을 받은 高等學校 및 大學 卒業班에 보다 甚하게 나타날 可能性이 甚다.

이 願望隔差가 크면 地位의 不一致(status inconsistency)나 心理的 貧困意識과 같은 現象을 招來하여 周邊人間(marginal man)이 된다. 周邊人間은 좌절감과 葛藤을 일으켜 攻撃的인 人間이 되거나, 正常的인 方法으로 充足시킬 수 없는 欲求를 非正常的인 方法으로 解決하려고 하는

22) 韓完相, 前揭書, p. 112-134.

데 非行과 逸脫의 現象을 빚기 쉽다.

이와 같이 價値觀이나 社會規範이 서로 葛藤을 일으켜 規範이 弱화된 狀態를 아노미(anomie) 現象이라고도 한다. E. Durkheim에 따르면 anomie를 ‘集團이나 社會에 있어서의 無規範의 狀態이거나, 行爲를 規制하는 共通된 價値나 道德的 基準을 잃은 混亂狀態’로서, 그 結果 自殺의 現象이 增大하는 것을 意味하였다.²³⁾ 그러나 R.K. Merton은 ‘目標과 手段間의 乖離’가 anomie라 揭示했다.²⁴⁾ Merton은 社會的 現實態를 文化構造와 社會構造의 두 가지로 區分하여 前者는 文化的으로 強調하는 目標과 이 目標을 達成하는 規範的 手段間의 隔差가 重要한 焦點이 되고, 後者는 機會構造(Opportunity Structure)의 重要性을 들었다.²⁵⁾

여기서 Merton의 見解는 逸脫의 性格을 把握하는데 重要한 한 示唆을 준다. ‘希求’라고 하는 젊은이의 理想的 願望은 文化目標을 反映하고, ‘期待’라고 불리우는 青年의 現實的 願望은 이 目標을 達成하는데 必要한 制度的 節次나 手段의 限界를 指示한다면, 願望隔差는 젊은이의 逸脫性向과 逸脫行爲에 聯關될 것으로 假定할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同一한 文化的 目標을 希求하나 이 目標의 達成을 위해 必要한 手段의 限界로 말미암아 既存體制로부터 그 어떤 隔離感 또는 疎外感을 느끼게 되는 나머지, 目標達成에 迅速하고 能率的인 ‘不當한 便法’을 使用하고 싶은 心情이, 곧 하나의 逸脫性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Ⅶ

지금까지 最近에 이르러 論議의 焦點이 되고 있는 青年文化의 意義와 發生 要因 및 그 機能과 特質을 考察하여 보았다. 아울러 韓國의 青年文化의 特性도 分析·檢討했다. 그러면, 韓國社會의 現實속에서 健全한 青年文化의 育成을 위하여 어떠한 課題를 가지고 있는가?

1) 冷徹한 知性과 彈力的인 精神이 필요하다.

韓國 青年學生들이 既成世代間에 갖는 健全한 葛藤과 對立은 어느 意味에선 社會的 發展과 進步를 뜻하지만, 韓國社會가 겪고 있는 하나의 陳痛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陳痛의 原因이라 생각되는 것으로서 社會의 不條理, 反殖民 反獨裁의 歷史的 傳統, 挫折感, 價値觀의 葛藤 등 몇 가지를 살펴 보았거니와, 그 어느 것도 簡單히 解決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時點에서 이러한 問題를 冷徹하게 考察할 수 있는 知性的 培養에 힘 쓸 것이며, 彈力性 있는 透徹한 對話精神을 갖기에 努力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反獨裁의 歷史的 傳統 때문에 無條件 反對와 抵抗을 일 삼는다든가, 心理的 挫折感에서 反抗을 위한 反抗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意見이 다른 사람들과도 對話를 나눌 수 있고, 또 行動修正(behavior modification)이 必

23) 鄭寅錫, 前揭書, p.254.

24) 同揭書.

25) 韓完相, 前揭書, p.140.

뜻할 때에는 勇敢하게 自身을 修正할 수 있어야 한다.

外來文化의 受容過程에서도, 自己 自身을 잃지 않은 것이 彈力的인 人間의 特性이다. 傳統의 인 것만을 固執하여 外部와 遮斷된 遲滯性으로 因해 自身을 亡치지 않으려고 하며, 그렇다고 外來文化를 조급하게 받아들여 自身의 固有한 同質性을 잃지 않으려고도 한다.

2) 社會의 따뜻한 理解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青年文化의 育成은 青年들의 努力만으로서 困難하다. 既成世代는 青年들을 理解하고 보살피고, 青年들과의 對話에 努力해야 한다. 青年期는 그 發達의 特徵으로 보아 獨立을 願하면서도 依存하려 하고, 自由를 渴求하면서도 保護를 바라며, 寬容을 바라보면서도 規律를 찾는다. 青年은 成人으로서의 特權을 바라면서도 成人으로서의 義務와 責任은 免除된 것으로 看做하는 한편, 成人은 青年들에 責任과 義務를 要求하면서 成人이 享有할 수 있는 特權을 주는 때는 인색하다.

이러한 青年들의 欲求를 無條件 抑壓하기 보다 따뜻한 理解와 사랑으로서 指導해야 한다. 이런 點에서, 本 大學의 學生理解와 指導를 모토(motto)로 하는 希望指導教授制는 바람직한 青年文化의 建設에 이바지 하는 바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既成世代는 젊은이들을 眞正 사랑한다면 젊은이들에 주어진 制約 속에서라도 可能的 限 自由롭게 實驗하고 試行錯誤를 하도록 開放의 雰圍氣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實驗精神 없는 곳에, 創造와 發展이 있을 수 없다.

3) 自我水準의 調整이 필요하다.

社會的 認識이 時·空間의 으로 擴大深化되고 現實的 認識이 分化됨에 따라서 自尊自負와 自卑自嘲의 逆方向의 心理는 青年期的인 心理이기도 하다. 따라서 青年期에는 不當하게 自我水準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여 그로 因해 스스로 精神的 緊張을 自招하는 경우가 非一非再하다.

특히 職業의 選擇에 있어서는 個人的 職業的인 適合性(vocational fitness) <能力的 要因, 人性的 資質, 身體的 條件, 職業的 興味, 家庭環境的 要因>을 考慮해서 거기에 一致된 職業을 가질 수 있도록 助言指導해야 할 것이다.²⁶⁾ 自身의 能力을 客觀的으로 認識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適合한 自我水準(欲求水準: level of aspiration)을 가질 수 있도록 配慮하는 것은 挫折感과 情緒的 葛藤을 豫防하는 하나의 手段이 된다.

4) 健全하고 적당한 媒體를 마련해 줌이 필요하다.

아직도 發芽期에 있는 韓國 青年文化가 適當한 媒體의 缺如에서 그 成長이 저해당하고 있다는 點에서²⁷⁾ 學生들에게 自己들의 廣揚과 自己들끼리 交流할 媒體를 提供해 준다는 것은 커다

26) 李榮德·鄭元植, 生活指導의 原理와 實踐(서울: 敎學圖書株式會社, 1962), pp.175-190.

27) 南載熙, "젊은 世代의 文化形成考," 李重漢 編, 青年文化論(서울: 玄岩社, 1975), pp.182-183.

란 寄與가 될 것이다.

大學內의 重要한 刊行物로서 特히 大學新聞·學報 등이 있지만, 그것마저 少數學生의 參與로 그치는 感마저 없잖다. 따라서 窮塞하지 않은 廣場과 媒体를 開發할 必要性이 있다. 이러한 廣場과 媒体를 갖게 될 때, 學生文化를 꽃피우게 될 것이며, 學生文化가 開花할 때 그것이 主導하여 青年文化도 제대로 形成될 것이다.

結論的으로 青年들의 意慾과 批判이 合理的 建設的인 面으로 代償 昇華토록 하여 健全한 青年文化를 建設하기 위한 努力은 青年들 自身과 既成世代 모두에 責任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 知性的인 自己 批判과 彈力的인 對話精神, 따뜻한 사랑과 理解, 自我水準의 調整, 그리고 適當한 媒介體의 提供 등은 바람직한 青年文化의 育成을 위하여 必要한 몇 가지 接近에 不週하다. 앞으로 더욱 韓國의 青年文化가 안고 있는 課題에 대해서 經驗的이고 科學的인 調査와 研究가 進行될 때, 現實에 알맞는 健全한 育成方案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며 또 그렇게 되기를 希求한다.

—Summary—

A Study of the Youth Culture

Ko Myong-kyu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ay out a program of development of the culture of students by analyzing the peculiarity and the function of youth culture, especially a characteristic of the culture of students in Korean.

From this point of view, description is educationally made of as follows:

Youth culture is, in a broad sense, a sub-culture. It is their behaviors, values, and attitudes which adolescents have uniquely in adolescence. But it can develop as a function of the counter-culture against the main-culture.

There are two kinds of factors in the shaping of youth culture. One is rapid mental and physical developments; The other is social environments which have an effect on the adolescents. Especially, the social conditions which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e are a sudden social change, the long length of adolescence, the differentiation of society, and the increasing of school population.

The peculiarities of youth culture arising from these social conditions are as follows:

- 1) Youth culture shows a sharp response to the adult culture.
- 2) It has a characteristic of its creative counter-culture against the adult one.
- 3) It seeks for the value of adolescents' status and popularity in their extra-curricular activities rather than that of their school works in school.
- 4) It has a higher level of aspiration than that of older generation.
- 5) It is not a transitional culture, but it is an original one.

The functions of adolescent culture are as follows:

- 1) Adolescent culture makes easily shifting from childhood to adulthood.
- 2) It reduces the potential tensions between mass culture and dominator one.
- 3) It plays a role as a guide to adolescents' behaviors in adolescence.
- 4) It controls their passions and creates in the minds of them a real passion for learning.
- 5) It serves to awaken to adult's self-interest and to revive a youthful way of life

in adulthood.

- 6) It plays an important part in cultivating their frustration tolerance and ego-identity in adulthood.
- 7) The decreasing of adolescents' social deviations may function in the role of the culture of them.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tudent culture obtained by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 1) Korean students have the spirits of resistance and criticism against their main-culture.
- 2) They experience the psychological conflicts between their traditional values and modern ones.
- 3) They give a feeling of aspiration discrepancy between their reality and ideal world.

The propositions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develop soundly the culture of studen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se characteristics in Korean are as follows:

- 1) Students should have their clear and penetrating intelligence and their flexible mind.
- 2) Adults must show a tender feeling and comprehension for their adolescents.
- 3) Students should have to make a big plan according to their ability.
- 4) A sound and appropriate medium of communication among students should be given to them.

In conclusion, the student's energy which is prevented from discharging itself in direct ways should be diverted into socially useful and culturally creative channels by the older and dominant generation as well as the student himself.